

韓뉴딜 마중물 자처... 60兆 금융지원·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3부. 디지털 뉴딜
① 하나금융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1.4조·그린뉴딜 8조 지원 하나벤처스 통해 모험자금 공급 김정태 회장 “마중물 금융 역할 최선”

한국판 뉴딜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하나금융은 한국판 뉴딜에 10조원을 지원하고, 이를 이끌 핵심 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50조원의 혁신금융을 지원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의 강점은 살리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혁신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10조원 지원

하나금융은 우선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뉴딜’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그린 뉴딜’에 8조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로는 스마트산업단지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와 이연성(PF)에 집중 지원한다. 데이터센터는 사람과 기업, 사회, 국가의 모든 활동과 재화를 담은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데이터 수집에서 가공, 활용까지 인공지능(AI) 기술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스마트 산업단지와 함께 5G 설비투자, 데이터 센터 등을 위한 기업금융(IB)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에 맞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공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3년까지 연간 1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그린 뉴딜 분야로는 친환경 미래 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첫번째)이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과의 화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망산업에 직·간접 참여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현재 하나금융은 신재생 에너지(해상풍력·수소 연료전지·태양광) 사업의 투자주선에 참여하고, 대체투자를 활용한 자본 유치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두산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해상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수소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보유한 두산퓨얼셀, 건물·주택용 및 모바일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중인 두산과 협력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직·간접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도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마중물 금융’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기업에 50조원 지원

하나금융은 혁신금융협의회를 신설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혁신기업에 50조원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로 인프라가 마련된 이후에는 사실상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내놓는 서비스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금융협의회는 ‘기업여신시스템 협의회’와 ‘창업벤처투자협의회’로 운영된다. 혁신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에 대해 기술력과 신용도를 같이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고, 직·간접 투자와 펀드 조성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혁신금융협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술금융 대출 로드맵을 운영해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하나은행 기술금융은 지난 2018년 1월 15조35억원에서 2020년 7월 기준 28조5865억원 증가했다. 담보대신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혁신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은 또 하나벤처스를 통해 모험자금을 공급한다.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혁신기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는 것.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나벤처스의 신기술금융 관련 투자액은 271억1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다. 지난 9월 기준으로는 올해 누적 투자액이 380억원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벤처스 출범식에서 “우리의 미래는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달려있다”며 “혁신창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계열사 협업을 통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신도시에 나부끼는 이주대책 현수막... “집 팔아도 갈 곳이 없어요”

3기 신도시를 가다
① 하남 교산지구

정부의 아파트 사전청약 발표 이후 3기신도시 지정 지역의 집값이 들쭉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8·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 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현재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은 3기 신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당장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청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찌감치 이주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은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열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주요 지역을 찾아 현지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하남 교산지구 내에 있는 공장과 주택.

3기신도시의 한 축인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에 대한 정부의 사전청약 발표 이후 하남 집값은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그러나 3기신도시 분양에 대한 부동산 수요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교산지구 거주민은 이주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한숨만 쉬고 있었다.

하남 교산지구는 지하철 9호선 올림픽공원역에서 버스로 3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근처에는 위례들레길과 남한산성, 덕풍천이 있어 최적의 친환경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보였다.

◆거주민 및 기업 이주문제 미해결

지난 7월 방문한 교산지구에는 거주민의 이주와 기업 이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려있었다. 기존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해 보였다. 실제로 교산지구에는 소규모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48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 입장에서 돈을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이주자택지를 받아 그곳에서 정착해야 하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교산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 경기주택공

사,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8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발표했지만 이주대책도 없이 지장물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이다.

사전청약 발표 후 하남 집값 상승 거주민-지자체, 이주대책 두고 갈등 토지보상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

교산지구에 거주하는 김평래씨(37)는 “3기신도시 발표 후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남시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정작 교산지구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기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 토지보상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은 6조7693억



하남 교산지구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정연우 기자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기업이전부지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하남시는 현재 기업이전대책과 관련해 지구계획 승인 신청 시 대체 부지 반영과 종교시설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 협의할 것 등 총 20여 가지를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 집값 상승세, 전세 품귀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청약조건을 만들기 위한 부동산 수요자들의 이동으로 집값은 오름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하남시는 미사지구 입주 이후 신규공급이 적었다”라며 “하남 역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산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3㎡당 762만원, 전세

475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각각 전월 대비 2.76%, 6.54%씩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하남자이106동(전용면적 84.99㎡)이 6억9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8월 6억28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대명강변타운119동(전용면적 84.83㎡)은 한 달 새 3000만원이 오른 8억4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전세는 대명강변타운102동(전용면적 84.43㎡)이 6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9월 5억원에 계약됐다. 이밖에는 미사강변도시 1806동(전용면적 84.67㎡)이 7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6억600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전세는 매매와는 달리 물건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다. 3기 신도시 청약조건을 갖추기 위한 수요자들이 이사철과 맞물려 대거 진입했다는 게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은 분양보다 1~2년 앞당겨 청약하는 것으로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라며 “청약가점이 낮은 30대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바이(공황구매)’에 나서고 있는데 신혼부부특별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집 마련 수요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 649만㎡ 규모다. 총 3만2000가구 주택이 공급되며 이 중 1만1000가구 이상은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Lost documents named Kang Young II
Date: May 31, 2018,
Location: Seongdong tax office
Content: At around 6pm on May 31 at the Seongdong tax office,
I lost a set of documents, which is the Sales Contract No. SH-3108/2018 of the Sunwah Pearl project at: 90 Nguyen Huu Canh, Ward 22, Binh Thanh District, named Kang Young II, passport number: M44249023.
Please contact me if you saw it or found it. I would really appreciate that.
Contact information : Kang Young II, Phone: 010-3163-7743